

한국일보



고찬유 기자

‘화장실로 변한 인도네시아 위안소’와 망자들을 기억해 주길



2019년 8월1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의 암바라와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의 모습. 가장 끝 방은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문도 새로 달아 화장실로 개조됐다.

망자의 이름과 발자취를 반년 넘게 쫓았다. 원고지 240매 분량, 4만7872자의 기록이 쌓였다. 관련 도서 7권을 읽었다. 의문과 질문은 오히려 늘었다. 듣고 싶었다. 묻고 싶었다. 중국엔 달아나고 싶었다. 그 현장을 마주한 뒤에야 망자는 뇌리에서 살아나 말을 걸었다. 혼이 들린 듯 며칠을 앓았다.

2019년 8월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500km 떨어진 중부자바주(州) 스마랑 인근 암바라와의 역사 현장은 화장실로 변해 있었다. 2000루피아(160원)만 내면 누구든 쓸 수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선을 매물차게 굶듯, 함께 일렬로 늘어서 썩어가는 19칸 방과 달리 그곳만 푸른 페인트가 칠해지고 멀쩡한 문

이 달렸다. 자초지종을 물어도 주민들은 심드렁했다. 그들은 그곳이 ‘일본군 성노예’의 거처(위안소)였다는 사실을 대개 몰랐다.

나머지 19칸의 면면은 참담했다. 폭 2.5m, 길이 3.6m, 높이 3m의 방들은 쓰레기 더미와 함께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 오랜 세월 창고로 쓴 듯했다. 돌침대와 침대 안쪽을 가리는 천을 걸어 물체를 고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구멍만 양쪽 벽에 두 개씩 남아있었다. 버려진 짐승 우리와 흡사했다. 자물쇠로 잠긴 방도 많았다.

그나마 보존이 잘 돼 있는 오른쪽 끝에서 다섯 번째 방 돌침대 위에는 녹슨 풍로와 전기밥솥, 먼지 수북한 오토바



1944년 12월29일 밤 고려독립청년당이 결성됐던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스마랑 소재 스모워노 보병훈련장 취사장의 2019년 8월1일 풍경. 학생들의 야영 숙소로 쓰이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러 가거든. 병원이 야전 병원이 부대 안에도 있고, 또 따로 큰 데가 있어요. 거기 나가면 인도네시아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리 반갑고 그렇더라고. 얼굴이 새까맣거든. 그래도 반갑고 남자들만 보다가 그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솟구치는 거라.”

“둘이 죽었다. 고마 개 한 마리 죽으면 갖다 물어버리듯이 그랬지. 장례식이 어디 있노, 거기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제가) 손든(항복한) 줄 몰랐는데, 13명이 가 가지고 3명이 죽었네. 3명 죽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방공호, 그 방공호 하나에 다 들어갈 순 없거든. 몇 명만 데리

고 방공호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 매장을 시켜버린 거라.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4명이던가, 3명이던가 방공호에 먼저 들어간 이들은 죽었다.”

증언이 너무 생생해 현장에 할머니와 함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뱉었다. “목숨만 부지하고 살자, 목숨만 살면 내 몸을 빼앗아가도 내 마음만은 안 뺏긴다. 그런 정신으로 내가 살았지. 조국이 힘이 없어 끌려간 것인데, 부끄러우려면 우리를 끌고 간 일본이, 그리고 조국이 부끄러워야지.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망자의 발자취는 더 있다. 위안소

에서 10여 분 거리부터 ‘암바라와 의거’ 현장이 펼쳐진다. 조선인 포로감시원이던 고려독립청년당 민영학, 손양섭, 노병한 세 의사가 갑작스런 전속 명령에 불만을 품고 1945년 1월4~6일 사흘간 일본군 십여 명을 죽인 뒤 모두 자결한 항일 의거다.

그들의 행적은 의거 현장에서 18km가량 떨어진 수모워노 보병훈련소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1944년 12월29일 밤 11시쯤 훈련소 취사장에서 결성된 고려독립청년당의 당원이 됐다. 고려독립청년당은 ‘아세아의 강도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하는 폭탄아가 되라’ 등 세 가지 강령을 발표했다.

1945년 1월4일 오후 3시쯤 일본군이 자바포로수용소 스마랑분소 제2분견소로 쓰던 암바라와의 성요셉성당에서 트럭 한 대가 출발했다. 전날 싱가포르(당시 말레이반도) 전속 명령을 받은 조선인 포로감시원 6명과 일본인 인솔 하사관 등이 타고 있었다. 포로감시원들은 갑작스런 명령에 비분강개했다. 세 의사는 성당으로부터 8~9km 지점에서 운전병에게 총을 겨누고 차를 멈추게 한 뒤 성당 옆 무기고에서 경기관총과 소총 등 무기를 탈취했다.

이어 세 의사는 분견소장(대위) 관사를 습격하고 밤늦게까지 암바라와 시내

를 돌며 일본군 군납업자와 의사(위생병), 형무소장 등을 사살했다. 일본군의 추격을 당해 민영학 의사는 5일 총상을 입은 수수밭에서, 나머지 두 사람은 6일 위생자재창고에서 잇따라 자결했다. 당시 일본군 공식 행정 문서에 세 의사의 사망 사실이 적혀 있다.

75년이 흐른 2019년 8월 고려독립청년당원들이 혈서를 쓰고 당가(黨歌)를 불렀던 취사장에 학생들과 가방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훈련장은 청소년 야영장으로 변했다. 오랫동안 네덜란드 국기가, 한동안 일장기가 걸렸을 연병장 깃대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포로감시원들이 묵었을 막사는 학생들의 숙소로, 매점으로 변해 있었다. 매점 주인도, 학생들도 옛 네덜란드 훈련장인 건 알았지만 일본군이 썼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무기고는 현재 학교 주차장으로, 위생자재창고는 공용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암바라와 의거는 그렇게 잊혀졌다.

고려독립청년당은 당 선언에서 ‘희생 없이 광명은 획득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후대인 우리는 광명을 획득했는가,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을 했는가. 이정표 하나 남기지 못한 암바라와 의거 현장에서 잠시 길을 잃었다.

자카르타로 돌아온 뒤 6개월이나

미뤄둔 숙제를 풀었다. 1920년 9월20일 적도의 땅에 ‘정착’ 해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년의 역사를 시작한 장운원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는 일이었다. 선생은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다 일본 경찰에 쫓겨 바타비아(현 자카르타)로 건너왔다. 1942년 3월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에 의해 고문과 투옥을 당했다. 1945년 8월 종전 후 해방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고문후유증을 이기지 못한 채 1947년 11월23일 자카르타 자택에서 통한의 27년 망명생활을 죽음으로 마쳤다.

여정은 자카르타 도심 아트마자야 가톨릭대 교정에서 시작했다. 본관 복도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앉은 의자 구석 너머 건물 벽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석판이 하나 붙어있다. ‘GEDUNG IR. J. P. CHO 1927-1995’. 장운원 선생의 차남 장순일을 기리는 건물명이다. J는 주니치(Junichi), P는 영세명 바울(Paul)이고, 초(Cho)는 장씨 성의 일본어 음독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역만리에서 독립을 위해 애쓰다 고문과 투옥을 당하고 그로 인해 숨진 선생의 못다한 유지를 실천한 후손을 기리는 석판에 어떤 이유로 일본식 이름이 붙었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장운원 선생이 투옥됐던 형무소 등은 민간 출

입이 허락되지 않아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장운원 선생의 자취를 쫓는 일은 그의 무덤에서 마무리했다. 선생은 남부 자카르타 타나쿠시르 공동묘지 정문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 100여m 떨어진 곳에 부인, 차녀와 합장돼 있다. 묘비의 ‘장운원(張潤遠)’ 한자 이름 밑에도 일본어 음독이 표기돼 있다. 그나마 출생지를 ‘SEOUL’ 이라고 새긴 묘비가 반갑고 서글펐다.

[일제 강점기, 적도의 한인들] 3부작과 여러 편의 후속 기사는 그렇게 탄생했다. ‘화장실로 변한 인도네시아 위안소’의 처참한 풍경과 ‘독립운동 망명객의 후손을 기린 석판에 일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자카르타에 3년 임기(2019년 1월~2022년 2월) 특파원으로 상주하지 않았다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역사의 기록이라 자부한다.

장운원 선생 비석과 그 아들을 기리는 석판에 일본어 음독으로 새겨진 이름을 바꾸고, 암바라와 의거 현장 및 위안소에 꽃돌을 세우는 게 2년에 걸쳐 두 차례 현장을 찾은 이의 바람이다. 다행히 인도네시아 이주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는 한인 사회가 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쪽 타나 쿠시르 공동묘지에 있는 ‘독립운동 망명객’ 장운원 선생의 산소. 묘비에 새긴 출생지 ‘SEOUL(서울)’이 선명하다. 부인 및 차녀와 합장돼 있다.

디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꽃돌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름이나마 기억하길 소망한다. 그들의 이름을 남긴다.

장운원(인도네시아 이주 100년 역사의 시작), 정서운(일본군 성노예로 고초), 민영학 손양섭 노병환 이억관 김현재 임현근 이상문 조규홍 문학선 백문기 박창원 오은석 신경철 지주성 박승욱 변봉혁 한맹순 금인석 송병기 김춘식 김민수 김규환 김선기 신재관 김인규 안승갑(이상 고려독립청년당).

한국과 인도네시아엔 비슷한 명언이 전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단재 신채호 선생), “역사를 잊으면 나라가 변질된다”(인도네시아 국부 수카르노). 기억은 응당 우리의 몫이다. 🙏